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쇼핑.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쇼핑, 조금 더 지속가능한 제품 골라볼까

유기농, 공정무역, 지역 생산품
그렇다고 디자인 놓칠 수 없어
소재, 디자인, 공임, 품질
스위스 메이드라면 다 욕심부려도 좋아
여행지의 감각, 정성 가득 담은 제품들
요즘은 지속가능한 것이 세련된 것

유기농, 공정무역, 지역 생산품 – 스위스 도시에는 지속가능성을 컨셉트로 한 숍이 다양하다. 기념품 쇼핑은 여행의 중요한 일부다. 이 기념품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면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 스위스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기본자세로 갖춘 숍을 골라봤다.

1. 취리히: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지속가능성을 일상에 통합하기: 리마트(Limmat) 강에 자리한 도시, 취리히 보다 더 쉬운 곳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

프라이탁(Freitag)
프라이탁 가방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색감이 풍부하고 패셔너블한 가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3 년에 탄생한 것으로, 취리히 서부에 있는 하드브뤼케(Hardbrücke) 지역에서 기원한다. 많은 숫자의 트럭이 취리히 서부 지역 도로를 가득 메울 무렵이다.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이런 풍경을 바라보던 프라이탁 형제는 방수포 재질의 버려진 트럭 덮개를 재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영감을 얻게 되고 유일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게 됐다. 2006 년부터 프라이타 플래그십 스토어가 트렌디한 취리히 서부 디스트릭트 5 구역에 우뚝 솟아 있다. 이 건물 역시 버려진 자재와 재료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오래 남을 체험을 선사해 주는 숍이다.

임 비아둑트(Im Viadukt)
1894 년 취리히 서부지역에 지어진 고가 철교 아래의 아치 안에 새 생명이 움텄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교를 철거할지 보존할지 투표에 부쳐, 보존 결정이 난 뒤다. 철교 아래에 형성된 아치는 총 36 개인데, 아치 안 공간 안에 갤러리와 스포츠 및 패션 부티크가 자리해 있다. 50 여 미터 길이를 따라 거닐며 쇼핑을 하고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아치 내부 중심에는 장터가 있는데, 20 여 개의 농가와 베이커리 및 와인숍 등 다양한 식음료 상점이 들어서 있다.

레볼베(RRRevolve)
공정 패션,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 숍이다. 취리히에 두 곳의 숍이 운영되고 있는데, 페어 패션 스토어(Fair Fashion Store)와, 에코 컨셉트 스토어(Eco Concept Store)로 구분되어 있다. 페어 패션 스토어는 니더도르프(Niederdorf)에 있는 히르셴플라츠(Hirschenplatz)에 있다. 모든 제품은 유기농 면, 텐셀, 기타 지속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지속가능성과 공정 무역을 염두에 둔 패션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에코 컨셉트 스토어는 취리히 서부지역에 있는 크라이스(Kreis) 5 지구에 있다. 백팩부터 나무 프레임 선글라스, 취리히 출신 디자이너의 비니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홈 텍스타일, 선물용품, 인테리어 용품, 정원 아이템을 판매한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마르크틀뤼케(Marktlücke)
독특한 수공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여기에서 쇼핑을 하면 스위스의 사회적 공방과 소기업도 도울 수 있다. 취리히 구시가지의 "쉽페(Schipfe)" 구역에 자리한 매력적인 상점으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실업 여성이 다시 경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엽서, 가방, 독특한 램프 등 다양한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취리히 지역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베르크 운트 탈 마켓 스토어(Berg und Tal Market Store)**, 스위스에서 만든 남성 패션을 선보이는 **마르칸트(MARKANT)**, 취리히를 흐르는 리마트 강에서 건져올린 페트병으로 만드는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라운드 리버스(Round Rivers)**가 눈에 띈다.

2. 루체른(Luzern): 팡파르를 울리기 보다 정직하게 공들이는

루체른의 성곽 뒤편, 지하 저장고, 구시가지 한복판 – 루체른의 지속가능한 보물은 잘 숨겨져 있다. 찾아보면 놀라움 그 이상이다.

힌터 무제크(Hinter Musegg)
도시 한복판이면서도 이렇게 자연과 가깝다니 놀랍다. 힌터 무제크 농장 때문이다. 이름이 말해주듯, 이 농장은 루체른의 중세 성곽, '무제크 뒤'에 있다. 원칙은 단순하다. 동시에 대단히 파워풀하다. 동식물을 위해 유기농법으로,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교육적인 접근도 놓치지 않는다. 외양간 문을 활짝 열고, 식당을 운영하며, 교육 트레일을 설치해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놀면서 탐험하다 가라고 손짓한다. 농장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숍이 있는데,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와 기념품, 선물용품을 판매한다.

옛날 약국(Alte Suidtersche Apotheke)
1833 년에 문을 연 루체른에서 제일 오래된 약국이다.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다. 약국 내부에는 덕망이 구석구석 켜켜이 쌓여 있는 듯한 독특한 기운이 감돈다. 다양한 약품 외에도, 티, 허브 블렌드, 오인먼트, 크림 등을 판매한다.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이 약국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루체른 기차역과 가까운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에 있어 찾아가기 쉽다.

3. 베른(Bern):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안 아이템

샅샅이 뒤져보는 벼룩시장과 중고 시장 문화와 지역색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시답게,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는 소담한 쇼핑을 기대해도 좋다.

하이마트베르크(Heimatwerk)
구시가지 시계탑 근처에 있는 하이마트베르크는 가장 스위스다운 수공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스위스 메이드 전문 상점이다. 스위스 장인들이 하나씩 정성껏 공들여 만드는 제품과 디자인 스튜디오 및 소기업에서 선보이는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다채로우면서도 혁신적인 장인 공예품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 품질과 기능성이 우수하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다.

더 뉴 뉴 베른(The New New Bern)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그냥 중고 상점이 아니라, 큐레이팅 과정을 거친다. 게셀샤프츠슈트라쎄(Gesellschaftsstrasse)에 있는데, 기차역에서 그리 멀지 않다. 판매뿐만 아니라, 중고 의류 매입도 한다. 현금 대신 스토어 크레딧을 선택하면 현금가 보다 20%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은 단호하다. 돌아가신 할머니 물건도 사주나요? 물어보면 당신의 할머니가 카린

로이펠드(Carine Roitfeld: 유명한 프랑스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면,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유머러스하면서도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주인장이 큐레이팅 한 중고품이 궁금해진다.

그 밖에도 순환적인 직물 경제를 위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는 **리워크(Rework)**, 스위스에서 생산한 디자인 및 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오니바(ooonyva)**가 눈에 띈다. 앤틱 제품부터 여러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베른 곳곳의 중고 상점을 "**브로키(Brocki)**"라 부른다. 이런 브로키와 **벼룩시장**도 즐거움 시간을 선사해 준다.

4. 생갈렌(St. Gallen): 동부 스위스 공예의 수준 과시

스위스 여행 중에 뭐 하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나? 지역적 특색과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것은 스위스 동부, 특히 생갈렌의 중요한 특징이다.

알패슈태른(Alpästärn)
혁신, 스위스 전통, 책임감 – 이 세 가지는 젊은 기업, 빌(Wil)을 이끌어 주는 중요한 정신이다. 생갈렌 근교에 자리한 기업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매력을 발산하는 장인들의 공예품을 판매한다. 알패슈태른은 이제 스위스 전역에 유명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스위스 전통 공예인 페이퍼 컷 랜턴이다.

레기오헤르츠(RegioHerz)
생갈렌 도심 한복판에 있는 농가 숍이다. 지속가능성, 계절성, 지역산 제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분명히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동부 스위스에 있는 150 여 명의 농부와 소규모 업체가 공들여 만든 홈메이드 식료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라 이젤리 주얼리(Goldschmiedewerkstatt Sara Iseli)
수공예 주얼리를 판매하는 상점이다. 새 제품도 판매하지만, 갖고 있는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기도 한다. 주인장인 사라 이젤리는 1999 년부터 생갈렌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공방에서 주얼리 디자인에 몰두해 왔다. 2014 년에는 그녀가 꿈꾸던 슈미드가쎄(Schmiedgasse) 20 번지로 숍을 옮겨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석, 금, 은, 플래티넘, 카본, 하이테크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만의 주얼리 한 점을 골라볼 때다.

콜로리트(Kolorit)
동부 스위스 감각이 물씬 풍기는 선물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갈렌의 직물 역사를 잘 대변하는 패션 및 홈 텍스타일 제품부터 생갈렌 다운 지역색이 잘 반영된 디자인 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스위스 메이드 품질과 디자인이 한껏 빛을 발한다.

5. 빈터투어(Winterthur): 당연히 환경에 의식적인

문화적이고 여유로우며 일상의 활동에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는 곳, 이곳은 스위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다.

볼렌비더 쇼콜라티에(Vollenweider Chocolatier)
노련한 장인 정신, 탑 퀄리티, 지속가능성 – 이것이야말로 전통 있는 기업의 상징이다. 7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콜릿과 구움 과자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왔다. 모든 초콜릿 재료는 유기농 농법을 이용한 것이며, 스위스 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사치는 책임감이 따르는 법.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글뤼슈테오리(Glückstheorie)
빈터투어 구시가지에 자리한 지속가능성 및 공정 무역에 초점을 맞춘 패션 숍이다. “공정한 의류 혼자서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옷을 입는 이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30 여 개의 공정 패션 브랜드 제품을 편집해 판매한다. 모든 제품에는 사람과 동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스토리가 가졌다고 믿는 이 숍에서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내가 입을 옷을 고를 수 있다.

룰티모 바치오(L’Ultimo Bacio)
대단한 유기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점이다. 소규모 업체와 계곡 구석의 치즈 공방, 반죽에 여유를 주고 곡물에 관심을 두는 소규모 베이커를 항상 물색한다. 빵, 유기농 신선 제품, 와인 및 치즈, 주스 등 다양한 식음료를 판매한다.

고품질의 흠결 없는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글란츠 세컨핸드(glanz Secondhand)**와 지속가능성, 자연주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우니카 페어 트레이드(UNICA Fair Trade)**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